

한섬감성해변길에 있는 몽돌해변. 동해안에서 흔치않은 몽돌해변으로 돌에 부딪치는 파도소리가 일품이다. 동해 | 김재범 기자

바다멍·담화골목 투어…여기가 지상낙원

'스카이밸리'서 바라보는 바다 절경
하늘 가르는 자전거 체험 스릴만점
옛 그대로의 '논골담길' 벽화 재미
풍광수려 몽돌해변서 'SNS 인생샷'
액티비티파크 무릉별유천지도 매력

동해는 1980년 강릉이 시로 승격되면서 인근 삼척군의 묵호읍과 북평읍이 합쳐져 생겨난 도시다. 이제 40년이 조금 넘었으니 도시로서의 연륜은 길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망상해수욕장과 추암바위 같은 해안 풍광부터 두타산, 무릉계곡으로 대표되는 산악 절경까지 두루 갖추어 선택지가 다양한 여행 명소로 요즘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TX가 연결되면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이곳이 동해시 '뷰 맛집'

최근 몇 년간 바다에 인접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한 것이 해안 전망대다. 하지만 아무리 높고 모양이 특별해도 결국 핵심은 바다 전망이다. 도째비골의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는 그런 점에서 해안 전망대의 '기본'에 충실하다. 바다로 길게 뻗은 해랑 전망대는 동해의 묵직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며 일으키는 하얀 포말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일품이다.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도 멋지지만, 밖에서 전망대를 배경을 찍는 사진이 더 매력적인 '뷰 맛집'이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도깨비'의 지역 사투리를 테마로 삼은 전망대 겸 작은 테마파크다. 인기있는 곳은 스카이사이클과 자이언트 슬라이드다. 자이언트 슬라이드는 전망대 기둥을 활용한 일종의 대형 미끄럼틀이다. 스카이사이클은 계곡 사이 179m 구간에 놓인 케이블을 자전거로 왕복하는 어트랙션이다. 높이가 꽤 되고 일종의 외줄타기여서 제법 스릴이 넘친다.



옛 묵호항시절 이곳에 살던 서민들의 주거지역을 관광코스로 개발한 논골담길(위 사진).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의 명물 액티비티인 스카이사이클. 케이블에 연결된 자전거로 하늘을 달린다. 동해 | 김재범 기자

●오밀조밀 골목길에 담긴 애잔한 삶

처음 '논골담길'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남쪽의 '다랭이 논'처럼 비탈진 지형에 조성한 농경시설을 떠올렸다. '도시 한 복판에 웬 논…?'이란 의구심을 살짝 가졌는데 지역 문화와 역사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착각이었다.

논골담길은 묵호동 산자락의 오밀조밀한 골목길과 일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이 지역이 과거 묵호항으로 불리던 시절, 오징어잡, 명태잡이 배를 타거나 인근 탄광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서민들의 주거지역이었다. 옛 건물들과 골목길을 없애지 않고 최대한 보전하면서 이곳에서 희망을 꿈꾸던 사람들을 소재로 다양한 그림과 오브제를 만들었다. 특히 '벽화'라는 표현 대신 담에 그린 그림이라는 뜻을 담아 '담화'라고 부르는 골목 그림들이 뛰어나다. 옛 모습을 담은 포근한 정서와 함께 기발한 재치의 해학 넘친 그림들이 많아 골목길을 누비며 이를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애국가 영상 속 일출이 이곳

추암 촛대바위는 동해안 여행길에서 최근 몇 년간 첫 손에 꼽는 곳이다. 애국가 영상 첫 소절의 일출장면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일출명소지만 새벽이 아닌 다른 때 찾아가도 늘 가슴 시원한 풍광을 선사한다. 인근에 형제바위, 식림같은 해변 절경과 고려 때 지은 해암정, 72m의 추암출렁다리 등이 있어 함께 돌아보면 좋다. 촛대바위만 보는 것이 아쉽다면 묵호동 방향으로 이어진 바다데크길을 따라가자. 한 5분 정도 걸으면 한섬 감성해변길이 나온다. 해안선을 따라 동해를 조망하는 해변길이다.

한섬 감성해변길 중반부에 있는 몽돌해변의 풍광이 특히 예쁘다. 파도가 해변 몽돌에 부딪치는 소리가 힐링 음악처럼 경치와 어우러진다. 인스타그램같은 SNS에 올릴 여행 동영상의 최적 포인트다.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한 체험

무릉계곡에 인접한 무릉별유천지는 역할을 다한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익스트림 액티비티 파크로 만들었다. 시멘트 원료를 운반하던 각종 중장비부터 쇄석장, 암벽 절개지 등을 그대로 보존해 독특한 볼거리를 만들었다. 금곡계곡의 용출수가 대형 웅덩이에 고여 조성된 두 호수, 청목호와 금곡호도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

무릉별유천지에서 필수로 즐겨야 하는 것은 야외 액티비티 어트랙션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4명이 동시탑승 가능한 스카이글라이더는 높이 125m의 아찔한 허공을 가르며 777m 구간을 왕복한다. 특이하게 반환타워를 등지고 돌아서서 타는데 그래서 고속으로 하강할 때보다 오히려 타워까지 뒤로 올라갈 때 더 짜릿한 스릴감을 준다.

동해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3.3m 크기의 거대 피노키오 인형이 베네치아 카니발의 가면을 쓰고 다빈치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이탈리아마을

비눗방울 퍼포먼스·매직쇼 유럽 동화나라 축제 열린다

'쁘띠프랑스' '피노키오와 다빈치' 5월 한달간

경기도 가평의 프랑스 테마마을 '쁘띠프랑스'와 이탈리아 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는 5월 가정의 달과 이탈리아마을 개관 1주년을 맞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제10회 유럽 동화나라 축제'를 진행한다.

축제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3.3m 크기의 거대 피노키오 인형이 이탈리아 현지 베네치아 카니발의 고양이 얼굴 형태 가면(Gatto)을 쓰고 다빈치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펼친다. 베니스 가면을 쓰고 중세 유럽의 복장을 한 공연자들이 광장에서 비눗방울 퍼포먼스, 매직쇼, 풍선아트 등을 보여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도 리뉴얼해 진행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발명품을 비롯해 다빈치 서거 500주년 전시회에서 공수해 온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피노키오와 다빈치 마을 입구에는 이탈리아 콜로디 재단의 피노키오 디자인을 모티브로 제작된 10.8m 높이의 국내 최대 높이 피노키오 동상도 만날 수 있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는 2008년에 개관한 쁘띠프랑스에 이어 8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성한 국내 유일의 이탈리아 문화 테마파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동화 캐릭터인 '어린왕자'와 '피노키오'를 메인 콘텐츠로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새단장 마친 '롯데호텔월드' 내달 1일 오픈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가 지난해 6월 고층부 개관에 이어 저층부 리노베이션까지 마치고 5월1일 그랜드 리오프닝(RE-OPENING)한다. 1988년 개관한 롯데호텔월드는 '5스타 트렌디 레저 호텔'이라는 모토 아래 3년에 걸쳐 리뉴얼을 진행했다. 우선 ESG경영의 일환으로 객실 키카드를 5월1일부터 호두나무 재질로 전면 교체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규 객실은 일반, 캐릭터, 레지덴셜, 온돌스위트 등 4가지 객실 타입 244실이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로티로리룸과 카카오프렌즈룸 등 캐릭터 객실을 기존 30실에서 52실로 대폭 확대했다. 장기 투숙객을 위한 레지덴셜 객실도 새로 도입했다. 42실 규모로 주니어 스위트와 디럭스 더블 룸, 트윈 룸으로 구성했다. 객실에는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의 생활가전을 갖추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29일 (금) 음력: 3월 29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적 길방:북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청색 길방:동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지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관재수를 조심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이성문제, 탈선도 심하라.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적색 길방:남	행운색:청색 길방: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원숭이띠에 자문을 구하면 길을 찾을 것이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날이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오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사방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성문제를 조심하라.

오늘의 날씨

29일(금)

서울	인천	춘천
60/20	60/20	80/30
12 / 19	12 / 18	10 / 17
강릉	**대전**	**전주**
80/70	60/30	60/20
10 / 12	11 / 18	12 / 19
광주	**대구**	**부산**
60/30	60/30	70/30
12 / 22	11 / 16	12 / 16
창원	**제주**	
70/30	70/30	
12 / 17	12 / 17	

지역 |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1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